



“홀로 빠르게 가기 보다 함께 멀리 가는 협회 만들 것”



먼저, 광고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를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이정치 회장님과 임호균 부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광고주협회를 같이 이끌어 주셨던 두 분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회장님을 이어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 협회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2022년은 협회는 물론 기업에게도 고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한편으론 일상 회복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각계의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대면이 촉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를 맞아, 광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원사와 함께 하는 광고주협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방송, 신문, 포털 등 주요 매체와 회원사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메타버스 등 새로운 채널을 활용한 교육서비스와 반론닷컴 운영을 통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송광고 연계판매 제도를 포함해 광고 금지 품목과 시간대 제한 등 비대칭 규제 해소와 부수공사 제도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통합ABC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가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광고의 선순환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빠르게 가기보다는 함께 멀리 간다”는 마음으로, 최영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단, 사무국과 함께 회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고주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최 선 목**

